



◁대방광불화엄경>진본(舊本) 권37 (국보 제202호).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대방광불화엄경>진본(舊本) 권29(보물 제666호).

佛經紙 · 종이불상 의례용 종이꽃 · 지승공예

'종이'는 어떻게 불성 담는가

한지의 종류

한지는 그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다. 닥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닥종이를 비롯해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다양한 원료로 한지를 만들었다.

미지(麻紙) : 마는 종이 발명될 때부터 이용된 재료로 가장 오래된 종이원료다. 주로 남마나 어망으로 사용되었는데 저마(苧麻), 모시와 대마(大麻), 삼베의 껍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황벽 등으로 염색하여 황색을 낸 것을 '황마지(黃麻紙)'라고 하는데, 이는 예전에 불경을 옮겨 적거나 인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뽕나무종이(桑紙) : 뽕나무는 닥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종이 원료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누에를 쳤기 때문에 뽕나무는 비교적 구하기 쉬운 종이 재료 가운데 하나였다. 닥종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뽕나무를 대신해 종이원료로 사용된다.

대나무종이(桑紙) : 대나무 종이의 원료로 사용된 시기는 9~10세기경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나무의 순과 굵은 줄기를 사용하여 만든다. 단단한 섬유를 무르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으면 거친 섬유다발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의 섬유가 균일하기 때문에 잘 만들면 품질이 매우 좋다.

고정지 : 빛깔, 보리질을 주원료로 만든 종이이다. 주로 인지(印紙)와 간지(簡紙)로 많이 쓰였으며, 특히 함경도 부령의 것이 유명하다고 한다. 이 고정지는 수요가 달라지는 닥종이를 대신하고 또 튼튼한 종이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

면지 : 고려말 목화재배가 시작된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종이이다. 그러나 실제 조선초기까지 면이 종이 제조에 이용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면으로 만든 종이는 닥종이보다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지만 공택이 적고 부풀듯한 느낌을 준다.

유목지 · 유엽지 · 의이지 : 각각 버드나무의 줄기나 잎, 율무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종이이다. 이외에 이끼에 뽕나무를 섞어 만든 종이를 태지(苔紙)라고도 했다. 또한 종이는 폭, 홍화, 치자 등 천연염료를 이용해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염색에 따라 옥색저주지, 홍색저주지, 초록저주지, 금번지, 청색지 등으로 다양하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 맥문동 200g, 황설방 100g, 볶은 소금 1/2작은 술, 물 1/2컵, 참기름 약간, 조청 5큰술.

요리법 : ① 맥문동을 깨끗이 다듬은 후 끓는 물에 데친다. ② 냄비에 황설방을 넣고 도리지를 은근히 졸이다. 물엿을 넣고 윤기 나게 다시 졸여낸다. ③ 투명하고 빛깔이 나면 수분을 빼고 설방을 살짝살짝 문혀서 접시에 담아낸다.

효능 : ① 장복하면 과로로 약해진 몸을 보양한다. ② 폐와 호흡을 안정시키고, 인체에 부족한 체액 및 정액을 증강시킨다. ③ 사포닌, 베타시스테롤, 아미노산 함유. 특히 메타놀엑스는 항염작용이 탁월하다.

문명의 전파와 문화의 전수자로서의 종이. 컴퓨터 하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현대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종이를 사용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불교와 종이의 인연 또한 깊다. 불교와 우리나라의 종이역사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종이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불교의 전래에 따라 불경이 들어온 시기인 4세기 전후에 종이 전래된 것으로 본다. 또는 고려의 달징이 610년 일본에 종이제조기술을 전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7세기초 보기도 한다. 불교의 전래와 불교의 승려 담장의 활동을 통해 결국 4세기~7세기 초 사이에 종이제조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이의 관련한 설화에서도 불교와 종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옛부터 유명한 종이 산지로 알려진 경북 의령에 고려 때의 승려 '살' 씨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때는 이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만들어진지 200년이나 지난 후여서 종이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말해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표적인 우리 종이인 한지(韓紙)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흥미 있게 말해준다.

고려 때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국사봉 중턱에 대동사라는 절이 하나 있었다. 그 절의 주지 설씨가 어느 봄날 뽕나무 껍질을 흐르는 냇물에 담가 두었더니 껍질이 물에 풀리면서 삼베처럼 섬유질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주물러서 바위 위에 건져놓았더니 종이와 같은 물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닥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종이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미지(麻紙) <범한다라니> 1매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종이는 삼베를 원료로 한 미지(麻紙)와 뽕나무를 원료로 한 저지(苧紙)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때에 만들어진 종이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뽕나무 껍질을 원

료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11세기 후반부터는 고려 종이를 불경지(佛經紙)로 쓰려는 중국 원나라에까지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려 때에는 수차에 걸친 <대장경> 조판사업이 이루어져, 종이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규모의 <대장경>이나 여러 가지 사적을 인쇄하기 위해 사용된 고려 종이는 백추지, 견지, 불경지, 아청지 등이 있다. 이때에 두껍고 질기면서도 앞뒤가 반달반달한 인쇄에 적합한 종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조선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지(韓紙)라고 부르는 저지(苧紙)는 이 시기에 그 특징이



◁한지로 만든 보물 제415호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갖추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 사용하던 백추지, 견지, 아청지, 불경지 등이 계속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제지 기술을 도입하여 지질의 고급화에 힘쓰는 한편,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종이를 개발해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종이는 또한 기능적으로 활용되어 인간 삶에 쓰이는 여러 종류와 여러 형태를 지닌 생활기물로 탄생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예술품으로 또는 오락물로 인간의 삶을 풍부하고 즐겁게 해주었다.

한지로 만든 건칠지불(乾漆紙佛)은 수백 년 전, 고려시대 말에서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조성된 대표적인 불교종이문화의 한 유형이다. 임진왜란 이후 그 맥이

단절되었는데, 현재 기림사, 장유사 등 십여군데의 사찰에 보물과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꽃이 귀했던 옛날에는 한지로 종이꽃을 만들어 각종 의례에 사용하기도 했다. 꽃방이라 하여 한지를 오려서 물감을 들여 만든 조화를 팔던 이른바 화방도 있었다. 불교의 영산재에도 이 종이꽃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 행해지는 영산재에서도 종이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종이꽃을 만드는 장인을 화장(花匠), 꽃일장이라 했다. 근래 와서 이 종이꽃을 조화라 부르지만 <진연의계>에는 채화(彩花)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보 제126호로 지정 복원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 최고의 목판인

불교전래 더불어 종이 국내사용 11세기 후반 고려불경지 원나라 수출 대장경 조판후 종이수요 증가

쇄물이다.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닥종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200여년을 탐 속에서 보내고도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자제만으로 우리 제지기술의 우수성을 그대로 말해준다.

오늘날 기계화된 양지에 비해 한지의 품위 있고 우아한 멋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해, 손으로 뜨는 전통 제지기술의 장점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또 한지의 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물감을 들인 아름다운 색종이는 다양한 종류의 색상의 뛰어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1600년 불교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온 종이.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된 <판문대장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것을 다시 전산화하는 오늘날에도 그 원본인 <대장경> 판본은 여전히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로 인쇄된다. 부처님 말씀의 결집체로서의 <대장경>은 우리 종이를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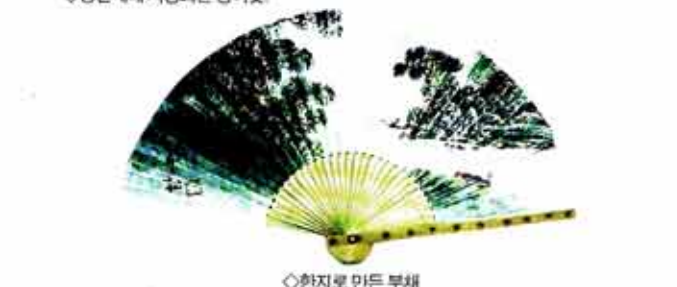
◁다양한 종류와 색상을 갖춘 한지는 생활공예품과 각종 예술품 등에 사용된다.



◁영산재에 사용되는 종이꽃.



◁한지로 만든 등.



◁한지로 만든 부채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맥문동정과

화랑출신이라면 정면대결보다는 테러와 모략에 능했던 김유신의 협보전과 외교에 뛰어난 김춘추, 두 사람의 만남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당나라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김부식의 말처럼 백제가 마땅히 망할 나라였다면, 패망 후 3년이 지나도록 백제 유민들이 목숨을 걸고 백제부흥운

폐와 호흡 안정... 항염작용도

의자왕이 갑자기 변하게 된 이면에는 김유신의 모략이 개입되어 있었다. 백제의 계백(桂伯) 장군과 그의 부하들은 절대적 방어선이었던 탄현과 백마강 하구의 지법포를 적에게 빼앗기자 마지막 출전을 앞두고 처자식을 모두 죽여야만 했다. 하지만 백제군 5천과 신라군 5만의 싸움은 의외로,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이 연전연승하면서 무려 4번이나 신라를 격퇴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백제군의 의로운 충성심과 비장한 용맹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수서의 <백제전>에는, 아녀

자들이 물에서 풀뿌리를 캐어 병사에 게 주었다고 전한다. 그 풀뿌리가 맥문동이었다. 맥문동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신력과 힘을 북돋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전장의 병사들에게 소중한 약이었다. 그 후로도 3년간 계속된 백제부흥운동에는 늘 맥문동의 효험이 함께 했다. 지금도 부산산 낙화할 절벽에는 백제의 고혼(孤魂)을 기리는 듯 자생하는 맥문동을 볼 수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세 7권 특별한식단이었다> 모세의 저자